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부모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팔로워인 학부모의 타임라인에 교육정보가 즉시 공개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치원 및 학교로 정함(안 제2조).
- 나. 법령 및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papermoon@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인터넷 매체로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단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할 경우 방문자에게도 공유되어지는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2.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시민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 | 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 |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 | 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 | |
| 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 | 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 | 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 | 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 | |
| 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대전광 | 킬 수 있는 개방화된 인터넷 | 매체로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 | |
| 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블로 | 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말 |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를 말한다. | |
| 한다. | | 가.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방 | 송, 홈페이지 등과 같이 게 | |
| 2.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 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 | 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 방문하여야 하는 단방향 네 | |
| 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 | 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 트위크 플랫폼 | | |
| 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 | 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 | 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 그램, 카카오토티 등과 | |
| | |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 | 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 |
| | | 일정한 요건만 충족할 경우 | 방문자에게도 공유되어지는 | |
| | |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 | |
| | | 2.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 |

| | |
|---------------------------|---|
| | <p><u>말한다.</u></p> <p><u>가. 대전광역시교육청</u></p> <p><u>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u></p> <p><u>따른 유치원</u></p> <p><u>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u></p> <p><u>에 따른 학교</u></p> <p>3.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p> <p><u>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u></p> <p><u>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u></p> <p><u>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u></p> <p><u>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u></p> <p><u>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u></p> <p>4. “이용자”란 각급기관의 소셜</p> <p><u>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u></p> <p><u>부모, 학생 및 시민 등을 말한</u></p> <p><u>다.</u></p> |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 |
| <u>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u>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 <u>은 소셜미디어의 안정적 관리·</u> | <u>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가 원</u> |
| <u>운영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u> | <u>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u> |
| <u>시민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u> | <u>마련하여야 한다.</u> |
| <u>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u> | |
| <u>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 |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생략)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현행과 같음) |

| | |
|---|---|
| <p>1. ~ 2. (생략)</p> <p><u><신설></u></p> <p>3. ~ 4. (생략)</p> <p>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각급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